

습지 방문객의 생태의식과 이용욕구 연구

정재만* · 오정학** · 김진선***

*청주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경기도시공사 조경팀 ·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Wetland Visitors' Aware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Jeong, Jae-Man* · Oh, Jeong-Hak** · Kim, Jin-Seo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Cheongju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wetland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effective measures to manage them. For this purpose, 3 study points were set up: "wetland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differences of such consciousnes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consciousness and their needs". To this end, Upo Wetland visitors were survey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visitors' awareness about ecology was measured with Dunlap's 15-item NEP Inventory, while their needs were analyzed in reference to Maslow's 7-Step Human Desire Ladder. The survey was conducted at Upo Wetland for 3 days, and as a result, a total of 228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were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In terms of their consciousness of ecology, their awareness of the ecological crisis potential and anti-humanism was highest. In terms of their needs, the aesthetic need was highest, followed by the cognitive one. On the other hand, the needs for self-achievement and self-esteem were lowest; except them, the higher the needs were positioned at Maslow's ladder of desire, and subjects were more responsive to th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was negative in some sub-areas, while being positive in other sub-areas. After all, the ratio of the sub-areas having a positive correlation was as 3 times high as that of the sub-areas having a negative correlation. Even as fo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s, they were higher in the positive sub-areas, which suggest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wetland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were positive, although at a lower level, in overall terms.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visitors' needs by dividing them into 3 sub-groups depending on the levels of their consciousness of ecolog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ir consciousness of ecology was, their needs were higher.

Overall, wetland visitors' awareness of ecology was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and it was estimated that such awareness would continue to increase. Henc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ir needs, particularly, their aesthetic and cognitive ones would continue to increase, too. Accordingly, it is deemed important to manage the wetland landscape making use of its visual

Corresponding author: Jae-Man Jeong,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360-764, Korea, Tel.: +82-70-4046-6812, E-mail: jhungjm@empal.com

resources, while continuing to provide the visitors with the contents fulfilling their need for knowledge.

Key Words: New Ecological Paradigm(NEP), Attitude, Behavior, Aesthetic Needs, Cognitive Need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습지 방문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그들의 생태의식과 욕구구조의 연관성 규명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습지방문객의 생태의식과 이용욕구수준의 파악’,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생태의식에 미치는 효과’, ‘생태의식과 이용욕구와의 연관성 규명’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은 우포늪 방문객 대상의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방문객의 생태의식은 던랩(Dunlap)의 15개 NEP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용욕구는 매슬로우(Maslow)의 7단계 욕구를 활용했다. 우포늪에서 3일간 조사한 끝에 총 228부의 설문지를 확보하여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방문객들의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생태의식에서는 생태위기 가능성과 반인간주의에 대한 반응이 높았다. 이용욕구에서는 심미적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지적 욕구였다. 자아실현 욕구와 자존의 욕구는 가장 낮았는데, 이 둘을 제외하면 대체로 욕구 위계가 높을수록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상관성 분석 결과, 부(-)적 상관과 정(+적 상관)이 섞여 있었으나, 정적 상관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상관계수도 정적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문객의 생태의식에 따라 상중하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용욕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생태의식이 높을수록 이용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습지 방문객의 생태의식은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인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용욕구 또한 계속 높아질 것이며, 특히 심미적 욕구와 인지적 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습지의 시각적 자원을 활용한 경관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방문객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생태적 페러다임, 태도, 행태,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

1. 서론

개발과 보존을 같이 이루려는 움직임은 1972년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비롯된다. 그 뒤 1986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란 보고서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다. 1988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짐하게 되었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는 환경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개발과 보존의 양립적 가치 추구에 대한 탐색적 태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ESSD를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에도 옮겨져 랍사르 협약 가입(1997)을 기점으로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99년 습지보전법이 마련되어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어 갔다. 해마다 늘어나는 습지보호지역 방문객 수가 그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우포늪, 순천만과 같이 규

모가 큰 습지에는 사철 내내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학생들과 청년층, 중장년층이 고르게 찾고 있으며, 경관관상과 생태관찰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습지와 같은 생태방문객은 일반 여가활동객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동기나 욕구로는 안정성과 존경심보다 자극이나 성취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Diamantis, 1998: 517-518),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혼잡한 것을 싫어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욕구가 있다(Kusler, 1991). 그들은 자연체험과 생태학습,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선호했는데(Meric and Hunt, 1998), 훼손되지 않은 자연 경험과 희귀한 동식물 관찰,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모험에 대한 도전으로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성향도 있었다(Crossley and Lee, 1994). 특히 오지 방문객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거주환경과 원시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탐구의식이 많았다(Johnston, 1990: 2-5). 당연히 그러한 과정에서 안락감, 사치스러움, 안정감에 대한 욕구는 일반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Eagles, 1992). 따라서 이들은 신체적으로 다소 힘들더라도 정신적인 자기개발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습지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태의식을 측정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차별화된 욕구를 찾아내고자 한다. 나아가서 욕구와 생태의식의 연관성 파악에 최종적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지방문객의 내면에 잠재된 동기의식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문 습지에 대한 이용욕구와의 연관성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 결과는 습지 유지관리정책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로서의 쓰임새가 기대된다.

II. 욕구와 생태의식

1. 던랩의 NEP 척도

현 세기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환경과 생태보존 문제일 것이다. 그만큼 산업혁명과 근대화는 환경·생태위기를 전지구적 문제로 확산, 가속화시켰다. 그런 점에서 근대는 기술주의적 혹은 기술공학적 합리성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정당성으로 자리하는 시기이기도 했다(Kim, 1988: 103). 그 때문에 생태의식의 뿌리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에머슨과 소로를 비롯한 초월주의자들은 자연친화적 내용을 담은 저작과 숲속 생활로 환경운동의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때 이들은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며, 글로써 자연을 찬미하였다.

20세기 유럽의 하이데거(1962)는 기술의 본질을 필요에 따라 자연을 조작하고 가공하는 공장(Ge-stell)으로 정의하며, 서

구의 인간중심 세계관 극복을 주창했다. 그 역시 종종 숲속의 오두막에 들어가서 집필활동을 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생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상은 한스 요나스(Hans Jonas)나 돈 아이디(Don Ihde) 등의 생태윤리학자들에게 전승되었다.

1950년 전후로 논평가들과 자연과학자들은 인간 행동이 자연환경을 손상시키는 데 주목하여 그 경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e.g., Carson, 1962; Osborn, 1948). 1970년대에 '환경문제'는 비로소 서구의 정책 의제에서 뒷자리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는 환경사회학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 환경사회학자들은 점점 심해지는 환경문제를 보며, 환경에 대한 사람들 인식 분석의 도구로써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 E.A.)에 주목했다. 사용가능한 환경태도 척도들은 많지만, 연구자들은 3개 척도만이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Dunlap and Jones, 2003, Fransson and Garling, 1999). 이들 척도는 생태학 척도(Maloney and Ward, 1973; Maloney, Ward, and Braucht, 1975, 환경문제척도(Weigel and Weigel, 1978), 그리고 NEP 척도(Dunlap and Van Liere, 1978; Dunlap, Van Liere, Mertig, and Jones, 2000)이다.

던랩과 벤 리에르(Dunlap and Van Liere)는 생태학 척도와 환경문제 척도는 새로운 환경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특정 환경 주제들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1978년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 척도를 발표했다. 이 척도는 리커트 척도로 된 세 영역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8개는 친환경적 문항이며, 4개는 반환경적 문항이었다. 그 뒤 2000년에 던랩과 그의 동료들은 이를 보완한

Table 1. Revised New Ecological Paradigm(NEP) scale

| No. | Items | Type |
|-----|---|-------------------------------|
| 1 | We are approaching the limit of the number of people the earth can support. | Reality of limits to growth |
| 2 | Humans have the right to modify the natural environment to suit their needs. | Antianthropocentrism |
| 3 | When humans interfere with nature, it often produces disastrous consequences. |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
| 4 | Human ingenuity will insure that we do NOT make the earth unlivable. | Rejection of exemptionalism |
| 5 | Humans are severely abusing the environment. | Possibility of an eco-crisis |
| 6 | The earth has plenty of natural resources if we just learn how to develop them. | Reality of limits to growth |
| 7 | Plants and animals have as much right as humans to exist. | Antianthropocentrism |
| 8 | The balance of nature is strong enough to cope with the impacts of modern industrial nations. |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
| 9 | Despite our special abilities, humans are still subject to the laws of nature. | Rejection of exemptionalism |
| 10 | The so-called "ecological crisis" facing humankind has been greatly exaggerated. | Possibility of an eco-crisis |
| 11 | The earth is like a spaceship with very limited room and resources. | Reality of limits to growth |
| 12 | Humans were meant to rule over the rest of nature. | Antianthropocentrism |
| 13 | The balance of nature is very delicate and easily upset. |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
| 14 | Humans will eventually learn enough about how nature works to be able to control it. | Rejection of exemptionalism |
| 15 | If things continue on their present course, we will soon experience a major ecological catastrophe. | Possibility of an eco-crisis |

Source: Dunlap *et al.*, 2000

수정된 NEP(New Ecological Paradigm) 척도를 제시한 뒤, 개정된 NEP 척도는 생태적 세계관의 드넓은 측면들을 다룬다고 강조했다(Dunlap *et al.*, 2000). 수정된 NEP 척도는 이름에 그 이전의 '환경적(environmental)'을 '생태적(ecological)'으로 바꾼 데서 알 수 있듯이, 생태를 더 많이 강조한 5개 영역의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처럼 5개 영역은 성장의 한계성, 반인간중심주의, 자연균형의 취약성, 예외주의의 거부, 생태위기 가능성으로 구성된 뒤, 이와 연관된 측정문항을 3개씩 설정하였다. 8개 홀수 문항에 대한 동의와 7개 짝수 문항에 대한 비동의는 친NEP 반응을 나타내며,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1978년의 NEP 척도와 함께 환경태도 척도로써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생태적 세계관을 담고 있어 본 연구의 측정척도로 사용하였다.

2.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

욕구는 사회심리학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으로 설명하며, 인간 행동의 동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때로는 충동이라고도 하는데,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핍이나 과잉현상이 생길 때 정상상태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Ko, 2000). 욕구 이론은 대체로 머레이(Murray)와 매슬로우(Maslow)의 이론으로 나뉜다. 머레이는 욕구(need), 압력(press), 주제(theme)라는 개념으로 인간행동을 설명했는데, 인간의 욕구와 환경의 압력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각 개인은 욕구에 의해 충동되고 압력에 의해 당기어진다는 것이다(Lee, 1983: 208). 따라서 행동은 욕구와 압력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다. 그가 구분한 생리적 욕구(1차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2차적 욕구)는 사회심리학에서 욕구의 기초이론을 형성한다.

매슬로우(1954)는 욕구를 타고난 것으로 봤는데,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했다.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욕구(safety needs), 애정과 소속욕구(love and belongingness), 자존의 욕구(est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가 위계를 이룬다. 각 욕구는 하위단계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비로소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5단계 욕구는 인간의 학습행동과 예술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매슬로우(1970a)는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와 심미적 욕구(aesthetic needs)를 별도의 욕구로 제시했다. 인지적 욕구는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식과 이해, 호기심, 탐험, 의미 추구 등이 있다. 심미적 욕구는 자연과 예술에서의 아름다움과 조화, 균형, 질서, 모양 등이다. 이 두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욕구의 위치는 자아실현 욕구 하위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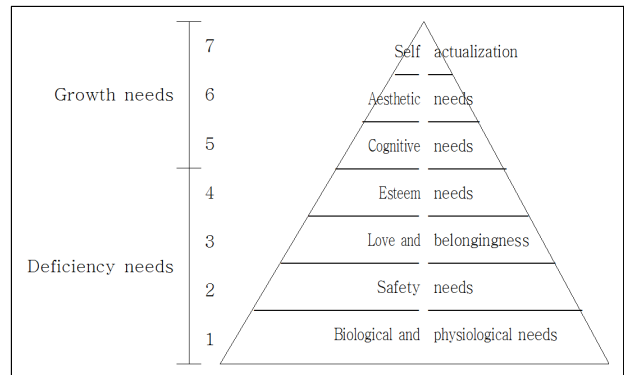


Figure 1. Adapted 7 level hierarchy of needs diagram Maslow's theory

7단계 욕구에서 하위 4단계는 결핍욕구, 상위 3단계는 성장욕구로 분류된다(Figure 1 참조). 성장욕구는 메타욕구(meta needs)라고도 하는데, 결핍욕구처럼 채워지면 동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채우려는 강한 동기가 계속 일어난다. 매슬로우는 '결코 완전히 채울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이 채우려는 강한 동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욕망'의 속성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설정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생태의식을 측정하는 단련의 NEP 척도는 단계적으로 척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선행연구에서 환경의식 측정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2000년에 개정된 NEP 척도는 기존의 포괄적인 환경에서 좀 더 '생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포늪과 같은 보존지향적 생태공간의 이용자 의식구조 규명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가 가진 기본적 생태의식은 신념화되어 태도나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우포늪 이용자의 생태의식이 이용욕구(needs)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어떠한 상호관계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한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구조는 기존의 5단계 욕구에 비해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가 추가되었기에, 보존적 생태공간이 가진 관찰 및 학습 욕구 측정에 일정한 효용성을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적에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포늪 이용자의 생태의식과 욕구의 위계구조는 어떠한 수준인가? 둘째, 이용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배경변수로서 생태의식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셋째,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생태의식에 따라 이용욕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측정척도 및 설문 설계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조사대상지의 현황조사를 거친 뒤, 설문 초안을 설계하였다. 설문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욕구, 생태의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응답자의 욕구 및 생태의식을 이루는 주요한 배경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소득수준, 동행자로 구성하여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욕구 측정은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 위계를 활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5개 욕구 위계에서 추가된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는 습지탐방이 생태교육·학습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욕구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미적 욕구와 연결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각 욕구별 열쇠말을 바탕으로 생태방문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안된 욕구별 측정문항은 Table 2와 같다. 질문 방식은 강한 부정에서 강한 긍정으로 이어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생태의식은 15문항으로 구성된 단련의 NEP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Table 1과 같이 하여 5개 하위영역과 친생태적·반생태적 질문이 고르게 섞이도록 조합하였다. 측정은 욕구와 마찬가지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문 초안을 작성한 뒤, 조사 대상지에서 방문객 20명 대상의 예비조사로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용어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본 조사용 최종 설문을 확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5~7일간 우포늪에서 진행하였는데, 요일에 따른 응답자 편의를 막기 위해 금~일요일의 3일간 실

Table 2. Measurement items of needs

| Level | Measurement items |
|-------|---|
| 1 | Rest and activity |
| 2 | Promotion of health and emotion stability |
| 3 | Emotional communion and promote friendship with company |
| 4 | Inspire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pride in explore ecological sites |
| 5 | Study wetland for satisfy cognitive needs |
| 6 | Observing the beauty of nature |
| 7 | Commune with nature in pursuit of self-actualization |

시하였다. 표본의 모집단은 '조사기간 내 우포늪을 이용하고 나오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성인'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원으로는 정신적으로 본 조사에 대해 이해가 가능한 대학생 3명을 사전 교육 뒤에 투입하였으며, 연구자가 조사감독(supervisor)을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오후 12시부터 우포늪 탐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빠져나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무작위 선정은 주 출입구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방문객을 특정한 지점을 정해 일정 간격별로 선별하는 방식의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했고, 대상자가 조사에 거부할 때는 그 다음 통과자로 대신했다. 설문작성은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법으로 하였으며, 협조 유도를 위해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 기간 중 총 25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뺀 뒤 총 228부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본 분석에 사용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ver.15.0)로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태의식, 욕구수준 등의 기술통계는 빈도분석과 평균값 분석을 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표본의 전체적인 분포경향을 분석했다. 생태의식 측정을 위한 단련의 NEP 척도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이론적 타당성이 보고되었으므로, 크론바흐의 알파값(Chronbach's alpha) 분석으로 5개 하위 영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신뢰성 분석을 거쳐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생태의식 비교와 생태의식수준별 욕구 구조 비교는 비교집단별 평균값 차이에 대해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으로 그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생태의식과 욕구구조의 연관성 분석은 상관성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한편, 분석 결과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도 검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0.0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남녀비는 47.1:52.9로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나이는 30대(32.0%)를 중심으로 40대(25.4%), 50대(20.2%), 20대(14.0%)의 순으로 분포했다. 20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일반적인 인구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20대 비율이 낮은 것은 젊은 층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특성과 불편한 대중교통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한 순천만 방문객을 조사한 이동근 등(2010)의 연구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같은 우포늪을 조사한 김진 등(2011)의 연구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대졸(54.9%)과 대학원졸(10.6%)이 전체 표본의 2/3에 가깝게 나타나, 학력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방문객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국내외의 보고(Weiler and Richins, 1995; Meric and Hunt, 1998; Roh, 2004; Seo, 2005)와 부합된다.

직업은 주부(21.9%)를 빼면, 사무·기술직(20.2%), 전문직

Table 3. Us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 Variables | Frequency | Percent (%) |
|------------------------|--------------------------------|-----------|-------------|
| Gender | Male | 107 | 47.1 |
| | Female | 120 | 52.9 |
| Age | 20's and younger | 32 | 14.0 |
| | 30's | 73 | 32.0 |
| | 40's | 58 | 25.4 |
| | 50's | 46 | 20.2 |
| | 60's and older | 19 | 8.3 |
| Academic background | Middle school or lower | 9 | 4.0 |
| | High school | 69 | 30.5 |
| | College | 124 | 54.9 |
| | Graduate school | 24 | 10.6 |
| Occupation | Managers | 17 | 7.5 |
| | Professionals | 44 | 19.3 |
| | Office workers | 46 | 20.2 |
| | Factory workers | 9 | 3.9 |
| | Sales and services | 18 | 7.9 |
| | Students | 14 | 6.1 |
| | Housewives | 50 | 21.9 |
| | Retired or jobless | 8 | 3.5 |
| | Others | 22 | 9.7 |
| Income level (monthly) | Less than 2 million won | 36 | 16.1 |
| | 2 million~3.5 million won | 93 | 41.5 |
| | 3.5 million~5 million won | 54 | 24.1 |
| | 5 million~6.5 million won | 22 | 9.8 |
| | More than 6.5 million won | 19 | 8.5 |
| Company | None | 8 | 3.5 |
| | Family members, relatives | 123 | 54.4 |
| | Friends, lovers | 62 | 27.4 |
| | Neighbors | 31 | 13.7 |
| | Others | 2 | .9 |
| Preferred activities | Trekking | 115 | 50.7 |
| | Observation of migratory birds | 53 | 23.3 |
| | Recording of the scenes | 27 | 11.9 |
| | Observation of aqua ecology | 14 | 6.1 |
| | Observation of plants | 12 | 5.3 |
| | Eco-tourism | 6 | 2.6 |
| Total | | 228 | 100.0 |

(19.3%)의 비중이 커서, 고학력자가 많이 집계된 것과 잘 연관된다. 주부층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형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측케 하는 항목이다. 월소득은 200~350만 원(41.5%)과 350~500만 원(24.1%), 200만 원 미만(16.1%)의 순이었다. 동행자로는 '가족·친지(54.4%)'가 가장 많아, 역시 가족형 방문이 많음이 직업분류에 이어 확인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활동으로는 '탐방로 트레킹(50.7%)' '철새관찰(23.3%)', '경관촬영(11.9%)'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정해진 관찰코스를 돌면서 철새를 관찰하거나 경관을 감상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태의식과 욕구수준

5개 영역 15개 문항의 NEP 평균값과 응답자 특성별 비교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반NEP 질문은 역산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친생태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5개 영역의 전체적인 반응은 3.02~3.81이다. 각 평균값이 리커트 5점 척도의 중립척도(3) 이상이므로, 5개 영역에서 모두 친생태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생태위기 가능성(3.81)에 가장 크게 반응했고, 반인간중심주의(3.69)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예외주의의 거부(3.02)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이었다. 즉, 생태위기 가능성에 대해 가장 크게 공감한 반면, '예외주의의 거부'는 중립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위기'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진 반면, 인간의 기술문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생태의식 비교에서는 성별과 학력별 비교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에서는 2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력별 비교에서는 4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친생태성을 가름하는 가장 큰 배경변수로 판단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친생태성이 높아 환경생태에 대한 지식이 생태의식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분석에서는 5개 영역에서 모두 여자의 생태의식이 남자보다 높았으며, 그 중에서 반인간중심주의, 자연균형의 취약성, 생태위기 가능성의 3개 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특히 생태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한층 더 뚜렷하여($p < 0.01$), 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이별 비교에서는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생태의식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예외주의의 거부와 반인간중심주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20대 이하 집단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나이가 적을수록 관련 교육을 많이 받았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Comparison of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it: mean(S.D.)

| | | Consciousness of ecology | | | | | Total |
|-----------|-----------------|-----------------------------|----------------------|-------------------------------|-----------------------------|------------------------------|---------------|
| | | Reality of limits to growth | Antianthropocentrism |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 Rejection of exemptionalism | Possibility of an eco-crisis | |
| Total | | 3.37 (.65) | 3.70 (.76) | 3.40 (.65) | 3.03 (.58) | 3.82 (.67) | 3.46 (.66) |
| Gender | Men | 3.37 (.77) | 3.71 (.75) | 3.32 (.65) | 3.06 (.61) | 3.76 (.70) | 3.44 (.50) |
| | Female | 3.47 (.48) | 3.92 (.68) | 3.53 (.68) | 3.09 (.48) | 4.06 (.56) | 3.61 (.33) |
| | <i>t</i> | 1.072 | 2.001* | 2.072* | .305 | 3.192** | 2.669** |
| Education | ≥ Middle school | 2.94 (.66) | 3.09 (.53) | 3.06 (.44) | 2.59 (.51) | 3.70 (.41) | 3.08 (.38) |
| | High school | 3.25 (.65) | 3.53 (.73) | 3.36 (.59) | 2.96 (.62) | 3.69 (.73) | 3.36 (.39) |
| | College ≤ | 3.42 (.65) | 3.81 (.72) | 3.42 (.67) | 3.07 (.55) | 3.91 (.65) | 3.53 (.43) |
| | <i>F</i> | 4.368* | 8.591** | 1.733 | 4.276* | 3.376* | 9.568** |
| Age | ≥ 20's | 3.43 (.82) | 3.87 (.61) | 3.25 (.57) | 3.29 (.52) | 3.69 (.82) | 3.51 (.42) |
| | 30's | 3.43 (.61) | 3.71 (.73) | 3.43 (.64) | 3.03 (.59) | 3.93 (.67) | 3.51 (.44) |
| | 40's | 3.25 (.68) | 3.79 (.75) | 3.41 (.69) | 2.98 (.60) | 3.87 (.71) | 3.46 (.49) |
| | 50's ≤ | 3.27 (.60) | 3.51 (.76) | 3.39 (.63) | 2.92 (.55) | 3.74 (.56) | 3.36 (.36) |
| | <i>F</i> | 1.519 | 2.953* | .752 | 3.998** | 1.901 | 1.914 |

* $P < 0.05$, ** $P < 0.01$

응답자들의 욕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7개 욕구의 위계별로 평균값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심미적 욕구(4.12)가 가장 높았고, 인지적 욕구(3.83), 애정 및 소속의 욕구(3.79), 안전의 욕구(3.74), 생리적 욕구(3.72), 자존의 욕구(3.20), 자아실현 욕구(3.00)의 순이었다.

인지적 욕구부터 성장욕구 임을 고려할 때 자아실현 욕구를 제외하면 성장욕구가 결핍욕구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심미적 욕구는 유일하게 4.0을 넘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순서인 인지적 욕구(3.83)와도 0.29의 적지 않은 격차를 두고 있다. 따라

서 응답자들은 심미적 욕구수준이 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지적 욕구(3.83)는 두 번째로 높았는데, 생태학습 및 습지 관찰 등의 목적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 표본을 비롯한 생태방문객들의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도 문화적으로 상이한 거주 환경과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이유로 생태방문객은 대개 오지 방문을 원한다고 보고되고 있어(Johnston, 1990: 2-5), 보편적으로 지적 탐구의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같이 온 동행자와의 정서적 교감과 친교에서 오는 '소속감과 애정욕구', 조용하고 오염되지 않은 장소가 주는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에 의한 '안전의 욕구', 휴식 및 신체활동을 통한 '생리적 욕구'도 일정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이 세 가지 욕구는 우포늪에서만 효과적으로 충족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여가활동지로서의 일반적인 욕구로 보이며, '심미적 욕구'와 '인지적 욕구'보다는 우포늪과 부합도가 낮은 욕구로 평가된다.

생태탐방의 성취감과 자긍심 고취와 같은 '자존의 욕구'는 3.2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자존의 욕구는 대개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거나 진입 장벽 등이 있을 때 심리적 자긍심을 유발할 수 있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needs

| Needs | Mean | S.D. |
|---------------------------------------|------|------|
|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 3.72 | .80 |
| 2. Safety needs | 3.74 | .80 |
| 3. Love and belongingness | 3.79 | .84 |
| 4. Esteem needs | 3.20 | .92 |
| 5. Cognitive needs | 3.83 | .91 |
| 6. Aesthetic needs | 4.12 | .86 |
| 7. Self actualization | 3.00 | .90 |

한 것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습지탐방'과는 그 부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는 '습지 탐방'의 특징적 현상이라기보다, '옥외여가활동'의 전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옥외여가활동에서 자존의 욕구는 그 원래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타성이 강한 '공적 활동'에 한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방문객과 일반적인 여가활동자의 욕구를 비교한 강미희(2002)의 연구에서도 자존의 욕구를 나타내는 '존경/성취'는 다른 6개 욕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국외의 연구에도 생태방문객은 안정성과 존경심보다는 자극이나 성취감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연구 결과(Diamantis, 1998)가 보고된 바 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3.0으로서 가장 낮았다. 강미희(2002)의 연구에서도 7개 욕구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기에, 일반적인 반응으로 판단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대상 활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중요한 욕구이다. 따라서 보다 자세하고 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별로 제일 반응이 높은 욕구를 집계해 보았다. 응답자에 따라 최고 반응을 보인 욕구의 개수가 다를 수 있어 중복응답으로 집계했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전체 응답자의 8.0%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보면, 매슬로우는 상위 1%의 사람

Table 6.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the needs

| Needs | Frequency | Percentage (%) | Plural response (%) |
|---------------------------------------|-----------|----------------|---------------------|
|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 75 | 14.2 | 35.4 |
| 2. Safety needs | 81 | 15.3 | 38.2 |
| 3. Love and belongingness | 85 | 16.1 | 40.1 |
| 4. Esteem needs | 30 | 5.7 | 14.2 |
| 5. Cognitive needs | 99 | 18.7 | 46.7 |
| 6. Aesthetic needs | 142 | 26.8 | 67.4 |
| 7. Self actualization | 17 | 3.2 | 8.0 |
| Total | 529 | 100.0 | 249.5 |

Table 7. Correlation between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needs

| | Consciousness of ecology | | | | | Total |
|---------------------------------------|-----------------------------|----------------------|-------------------------------|-----------------------------|------------------------------|--------|
| | Reality of limits to growth | Antianthropocentrism |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 Rejection of exemptionalism | Possibility of an eco-crisis | |
|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 .049* | .062* | .290** | .076* | .244** | .217* |
| 2. Safety needs | .074 | .095 | .148* | -.008 | .135* | .138* |
| 3. Love and belongingness | .102 | .053 | .225** | -.036 | .181** | .162* |
| 4. Esteem needs | -.004 | -.111 | .058 | -.097 | .017 | -.043 |
| 5. Cognitive needs | .092 | .141* | .156* | -.025 | .301** | .208** |
| 6. Aesthetic needs | .023 | .212** | .166* | .017 | .265** | .215** |
| 7. Self actualization | .043 | -.104 | .007 | -.185** | .022 | -.062 |

* $P < 0.05$, ** $P < 0.01$

들만이 자기실현인이라고 했고(Maslow, 1970b), 쇼스트롬은 상위 5% 안에 속하는 사람을 자기실현인이라고 보았다(Shostrom, 1973). 따라서 상위 8%에 달하는 자아실현 욕구 비율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함의를 가진 '자아실현'의 의미적 특성상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최소한 습지방문객의 자아실현 욕구가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태의식과 욕구의 연관성

생태의식과 욕구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5개의 생태의식영역과 7개 욕구 위계간 상관성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산출된 42개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185 \sim .301$ 의 범위 안에 있다. 그 중 10개가 음(-)의 상관관계이고, 32개가 양(+)의 상관관계였다. 따라서 생태의식과 7개 욕구간의 상관관계는 상당수의 정(+)적 관계와 일부 부(-)적 관계가 섞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0개의 부적 상관계수는 그 중 7개가 0.1 미만일 정도로 상관성의 정도가 매우 낮아 거의 중립 수준으로 평가되기에 정(+)적 관계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생태의식 합계치를 기준으로 하면 생리적 욕구(.217)와 심미적 욕구(.215), 인지적 욕구(.208)의 상관성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태위기 가능성-인지적 욕구(.301), 자연균형의 취약성-생리적 욕구(.290), 생태위기 가능성-심미적 욕구(.265)의 관계에서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모두 정(+)적 관계였다. 5개의 생태의식 영역 중에서는 생태위기의 가능성과 자연균형의 취약성이 7개 욕구위계와의 상관성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한 모두 정(+)적 관계였다.

생태의식 중에서 예외주의의 거부와 반인간중심주의는 각각 자아실현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와 부(-)적 상관관계였고, 그 크기는 $-.097 \sim -.185$ 였다.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는

모두 자신(인간)의 자의식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다. 반면, 반인간중심주의와 예외주의의 거부는 인간을 특수한 존재가 아닌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 보는 시각과 연관되기에 부(-)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의식과 욕구의 전체적인 연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남에 따라 2차적으로 생태의식에 따른 욕구 차이를 파악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를 생태의식에 따라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분류 기준은 전체 평균값의 최저값(1.8)과 최고값(5.0), 중간값(3.4)을 확인한 뒤, 중간값을 기준으로 등간격으로 나누어 3.0 이하를 하위집단, 3.8 이상을 상위집단으로 구분했다. 그에 따른 분류된 상위 46명, 중위 150명, 하위 32명을 분산분석(ANOVA)으로 7개 욕구의 위계별 차이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대체로 생태의식이 높을수록 욕구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특히 상위집단은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 애정 및 소속욕구에서 평균값 4.0 이상의 매우 높은 욕구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는 유의한 차이 없이 세 집단의 수준이 비슷하였다. 이 두 욕구는 Table 5와 같이 7개 욕구 중 가장 반응이 낮았고, Table 6과 같이 이 두 욕구가 높은 응답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Table 7과 같이 생태의식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043과 -0.062로서 거의 상관성이 없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생태의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자의식과 연관된 욕구를 뺀 대부분의 매출로우 욕구 위계는 생태의식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의식이 높을수록 욕구의 성격과 크기가 한층 더 명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이

용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교집단간의 다중비교 분석을 위해 LSD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욕구에서 상중하의 세 집단은 제각기 독립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 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심미적 욕구는 모두 상·중위 집단이 동질집단으로 묶여 하위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용자의 일반 생태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우포늪의 각종 이용자 지원 및 서비스가 더 고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심미적 욕구는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의 욕구가 모두 4.0 이상이어서, 이와 관련된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미적 욕구는 미를 추구하는 욕구이며, 탐미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특히 도시생활의 비중이 커지면서 환경에 대한 심미적 욕구는 녹색갈증과 접목되어 천연적 자연경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포늪에서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경작지와 같이 습지를 훼손하고 있는 일부 인공적 경관요소에 대해 빠른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생태적인 민감지역은 출입을 좀 더 통제하는 등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습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태의식을 분석하고, 이용욕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습지는 다른 여가공간과 달리 보존지향적인 특성을 가지며, 공간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등 이용편리성이 좋지 않은 공간이다. 그럼에도 차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은 습지의 이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결국 환경생태적 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별화된 습지 이용자의 생태의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Table 8. Comparison of the needs by ecological consciousness

| | Ecological consciousness (Mean/S.D.) | | | F | P |
|---------------------------------------|--------------------------------------|---------------|----------------|-------|------|
| | High | Medium | Low | | |
|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 3.86 (.73) | 3.78 (.77) | 3.28 (.92) | 5.919 | .003 |
| 2. Safety needs | 3.77 (.91) | 3.82 (.69) | 3.27 (1.04) | 6.333 | .002 |
| 3. Love and belongingness | 4.09 (.78) | 3.80 (.77) | 3.38 (1.08) | 5.885 | .003 |
| 4. Esteem needs | 3.20 (1.07) | 3.22 (.86) | 3.07 (1.08) | .314 | .731 |
| 5. Cognitive needs | 4.17 (.84) | 3.84 (.82) | 3.44 (1.21) | 5.628 | .004 |
| 6. Aesthetic needs | 4.39 (.87) | 4.14 (.79) | 3.66 (1.04) | 6.342 | .002 |
| 7. Self actualization | 3.09 (.88) | 2.98 (.88) | 2.97 (1.06) | .207 | .814 |

이용욕구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던랩의 NEP 척도를 생태의식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이용욕구는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위계를 활용하였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는 이미 조경분야에서 조경공간 이용자의 욕구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서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5단계 척도에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추가한 7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욕구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애초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응답자들의 생태의식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그 결과,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생태위기가능성과 반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응이 높았다. 이와 같은 생태의식은 응답자의 성별, 학력, 나이 등의 배경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특히 학력의 영향이 가장 컸다. 남녀 성별로는 여자의 생태의식이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별로는 예외주의의 거부와 반인간중심주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생태의식이 높았다. 따라서 최근의 새로운 생태적 교육경험과 그러한 교육의 총량이 생태의식 형성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응답자들의 7개 욕구위계는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욕구수준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아실현욕구와 자존의 욕구를 제외할 경우, 욕구 위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반응을 보여, 결핍욕구보다는 성장욕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심미적 욕구는 두드러지게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습지 이용자들이 관찰, 감상 등 시각적 조망행위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상대적으로는 낮은 반응을 보였으나, 매슬로우와 쇼스트롬 등 관련 연구자들도 이 욕구는 원래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욕구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습지 이용자들이 특별히 낮은 반응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

셋째, 5개 생태의식과 7개 이용욕구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5개의 상관관계수 중 27개가 정(+)적 상관관계였고, 부(-)적 상관관계도 대부분 상관관계수가 0.1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심미적 욕구, 생리적 욕구, 인지적 욕구와 생태의식의 상관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생태의식 수준에 따라 이용욕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태의식이 높은 집단의 이용욕구가 대체로 높았으며,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 애정 및 소속욕구에서 비교적 그 차이가 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우포늪 이용자의 생태의식과 욕구구조는 다른 여가공간과 차별화된 이용자 생태의식을 비교적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욕구구조에서 두드러진

반응을 보인 심미적 욕구는 시각적 경관관리가 습지의 유지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반응을 보인 인지적 욕구와 함께 생태의식과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생태의식이 높아질수록 심미적 욕구와 인지적 욕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석은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에서 이용자 나이가 어릴수록 생태의식이 더 높으면서 그 당위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습지의 유지관리는 자원관리와 함께 이용자의 생태의식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구조를 활용하였으나, 심리적 반응조사가 질문지 단어나 어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즉, 이용욕구를 7개의 단일 문항이 아니라 복수문항으로 측정 한 뒤,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등을 거쳐 측정오차를 보다 최소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1. Carson, R.(1962)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2. Crossley, J. and B. Lee.(1994) Ecotourists and mass tourists: a difference in 'benefits sought'. Proceedings of the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Bal Harbour: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3. Diamantis, D.(1998) Consumer behavior and ecotourism produ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2): 515-518.
4. Dunlap, R. E. and K. D. Van Liere(1978)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9: 10-19.
5. Dunlap, R. E. and R. E. Jones(2003)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In R. E. Dunlap and W. Michelso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pp.482-524). Westport, CT: Greenwood Press.
6. Dunlap, R. E., K. D. Van Liere, A. Mertig and R. E. Jones(2000) Measuring endorsement of the new ecological paradigm: a revised NEP scale. *Journal of Social Issues* 56: 425-442.
7. Eagles, P.(1992) The travel motivations of Canadian ecotouris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2): 3-7.
8. Fransson, N. and T. Gärling(1999)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definitions, measurement methods, and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 369-382.
9. Heidegger, Martin(1962) *Technik und die Kehre*, Lee Ki Sang(trans.) *Technique and Turn*. Seoul: Seokwang, 1993.
10. Herberlein, T. A.(1981) Environmental attitudes. *Zeitschrift für Umweltpolitik* 4: 241-270.
11. Jelly, A.(1983) *Personality Theories*, Lee Hun Ku(trans.). Seoul: Bobmunsa.
12. Johnston, B. R., ed.(1990) Breaking out of the tourist trap. *Cultural Survival Quarterly* 14(1): 2-5.
13. Kang, Mi Hee, Nam Jo Kim and Seungj Dam Choi(2002) Identification of ecotouris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with mass tourists: Focusing on travel motivations and attitudes.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17(2): 157-175.
14. Kim, Jin and Dong Wan Ko(2011) A change in tourism environmental attitudes through ecotourism activities - Focusing on ecotourism participants in Upo wetland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1): 56-64.

15. Kim, Young Pil(1998) Review Contemporary Philosophy. Seoul: Yimun.
16. Ko, Young Bok(2000) Dictionary of Sociology. Seoul: Center for Society & Culture.
17. Kusler, Jon(1991)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i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trengthening Resource Conservation through Ecotourism.
18. Lee, Dong Kun and Bo Mi Kim(2010) Important-satisfaction analysis as a management strategy of Suncheon Bay Ecological Park.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7(6): 39-47.
19. Maloney, M. P. and M. P. Ward(1973) Ecology: Let's hear it from the people. An objective scale for measurement of ecological attitudes and knowledge. American Psychologist 28: 583-586.
20. Maloney, M. P., M. P. Ward and G. N. Braucht(1975) Psychology in action: a revised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ecological attitudes and knowledge. American Psychologist 30: 787-790.
21.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22. Maslow, A. H.(1970a)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23. Maslow, A. H.(1970b)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s. New York: Penguin.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24. Meric, H. J. and J. Hunt.(1998) Ecotourists' motivat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case of North Carolina travel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4): 57-61.
25. Osborn, F.(1948) Our Plundered Planet. Boston: Little, Brown.
26. Roh, Yong Ho(2004) Determinant Factors of Ecotourists' Satisfaction and Behavior Responses. Ph. 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7. Seo, Jeong Won(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Ecological Tour Visitor's Motive, Attitude, and Involvement on the Recognition of Tour Brand Value. Ph. 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28. Shostrom, E. L.(1973) Self-actualization: A scientific ethic.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 29-35.
29. Stern, P. C.(1992) Psychological dimension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269-302.
30. Weigel, R. and J. Weigel(1978) Environmental concern: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Environment and Behavior 10: 3-15.
31. Weiler, B. and H. Richins(1995) Extreme, extravagant and elite: a profile of ecotourists on earthwatch expedition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0(1): 29-36.

원 고 접 수 일: 2013년 11월 4일
 심 사 일: 2013년 12월 16일(1차)
 개 재 확 정 일: 2013년 12월 16일
 4 인 의 명 심 사 필